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11. 8.(수) 06:00 ~ 23:00
- 상담건수¹⁾: 741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11명)

-프로그램명 : 「6시 내고향」

-방송일시 : 2023. 11. 7.(화) 1TV (18:00-19:00)

이날 사과 특집이 방송됐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과를 먹을 철인데, 방송에서 사과를 다뤄주어 좋았다. 제공하는 정보들도 마음에 들고 유익했다. 감사하다.

○ 진행자 제언(2명)

-프로그램명 : 「시사기획 창」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방송일시 : 2023. 11. 7.(화) 1TV (22:00-22:50)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편을 시청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교묘하게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멘트에서도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이스라엘 사람들만 언급하는데,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2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741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323	73	-	-	345	741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22	262	12	-	1	144	741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90	651	-	741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67	5	50	119	741

시청자 의견	문 의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제언 ○ 「KBS 뉴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호평 ○ 「KBS 뉴스(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제언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시사기획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제언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제언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화드라마 「혼례대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 문의」 연락처 문의 44건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태전골」 연락처 문의 41건 ○ 「아침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참여」 연락처 문의 17건 ○ 「개그 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청」 문의 9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연락처 문의 9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3건 ○ 「수신기술」 문의 2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22건 ○ 「수신료」 문의 2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3건 ○ 「전화교환」 문의 7건 ○ 「주차」 문의 3건 외 3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19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보 도]	
출연자 섭외 제언	<p>○ 「KBS 뉴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 공영방송 KBS에서 개선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시청자들에게 날씨를 전달하는 기상캐스터는 왜 여성만 채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여성 기상캐스터들의 화려한 의상과 화장이 날씨를 전달하는데 적합한지도 의문이 든다.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 기상캐스터도 채용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진행자 호평	<p>○ 「KBS 뉴스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7.(화) 1TV (21:00-22:00) - 전라도 광주에서 시청 중이다. 본인은 KBS 1TV의 9시 뉴스를 주로 시청한다. 이소정 앵커가 진행을 너무 잘하고, 목소리 또한 좋다. 이소정 앵커의 진행을 시청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이다. 너무 잘 시청하고 있으며, 추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만나고 싶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보도 제언	<p>○ 「KBS 뉴스(홈페이지)」 [심충K] ‘7살 아이는 맞아도 아무 말 못 했다’(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6.(월) - 기사 중 ‘교사’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7살 김 모군이 언어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중 학대당한 내용이다. 학대한 사람은 ‘언어재활사’이고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기에 교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서 제목과 내용에 교사로 지칭하여,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교사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주의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엄** 외</p>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방송 호평	<p>○ 「6시 내고향」(1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7.(화) 1TV (18:00-19:00) - 이날 사과 특집이 방송됐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과를 먹을 철인데, 방송에서 사과를 다뤄주어 좋았다. 제공하는 정보들도 마음에 들고 유익했다.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진행자 제언	<p>○ 「시사기획 창」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7.(화) 1TV (22:00-22:50) -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편을 시청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교묘하게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멘트에서도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이스라엘 사람들만 언급하는데,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진행자 제언	<p>○ 「2TV 생생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6.(월) 2TV (18:40-19:50) - 방송 말미에 세 진행자가 춤을 춘다.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보기에 좋지 않다. 자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정**</p>

의견	세부내용
[드라마]	
출연자 섭외 제언	<p>○ 월화드라마 「혼례대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7.(화) 2TV (21:45-23:05) - KBS 드라마를 좋아하고, 특히 KBS에서 제작하는 사극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번 사극에선 여자주인공 정순덕(조이현 분)의 화장이 너무 진해 몰입이 되지 않는다. 조이현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을 맡을 정도로 외모나 연기력이 훌륭하지 않기에 의아한 부분도 있다. 기대를 많이 품었던 사극이고 즐거이도 흥미로운데 반해 출연자 섭외가 아쉽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